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이승훈	소속(학부/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파견 학기	2022/2학기 - 2023/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 군대에 있을때부터 어렵פות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전역후 유튜브에서 우연히 영어회화에 관련된 영상을 접하고 영어회화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몇개월을 방에서 하니, 실력이 어느정도 올라왔는지 가늠이 가지도 않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았고 교환학생이란 제도를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하일브론 대학교의 경우 모든 절차가 이메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신청 하셨다면 이메일을 통해 요구되는 서류들을 기한안에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함을 자주 확인하세요. 이메일을 통해 기숙사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비자발급의 경우 무비자로 독일 입국후 대학내에서 교환학생들을 모아 시청에서 비자 발급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수강신청의 경우 한국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간표를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신청한 과목에 대한 시험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못하며 학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널널한 분위기입니다. 시간표에 수업등록을 해둔 상태여도 시험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격입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 하일브론은 독일 서남쪽에 위치해있습니다. 독일 중앙이 아니라 끝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가까운 나라들은 기차타고 몇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기에는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어느 계절이든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큰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대학교는 2개의 캠퍼스 Sonheim 캠퍼스와 Buildings캠퍼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Sonheim 캠퍼스는 학교 기숙사에서 도보 5-6분정도이고 공학계열 수업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오공대생들이 Sonheim캠퍼스로 수업을 듣게 되텐데 안타깝게도 대학교가 아주 멋지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 Buildings캠퍼스는 학교 기숙사에서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며 시내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계열 수업이 이루어지고 캠퍼스가 새로 지어져서 깔끔하고 넓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 공학 수업들은 한국처럼 교수님이 주도하는 느낌이 강하고 인문 과목들은 (수업마다 다르지만) 학생들이 이끌어 가는 수업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 회화에 자신있으시면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B2 수업 추천합니다. 수업이 완전히 토론식으로 진행돼서 재밌어요.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 기숙사는 건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건물다 큰 차이는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방이 조금 크냐 작냐 입니다. 기숙사 방은 혼자 쓰고 주방, 화장실을 룸메이트 (1)명과 공유합니다.

27/31 빌딩으로 나뉘는데, 27빌딩이 조금 더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27 빌딩 기준으로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때는 기숙사 비가 340 유로 정도 들었는데, 나중에 독일 물가 오르면서 같이 올라서 지금은 430 유로정도 합니다.

생활비는 본인쓰기 나름이겠지만 제 경우 일주일에 식비로만 6-70유로정도 썼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 하일브론 대학교 자체 내에서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동적으로 독일학생이랑 1:1 매치가 됩니다. 버디랑 교환학생끼리모이는 정기적 프로그램도 가끔 있습니다. 버디랑 친하게 지내면 독일인들만 아는 주변 이쁜도시에도 갈 수도 있어요. (버디 바이 버디)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 ASTA 라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매우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스포츠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축구, 배구, 탁구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개념보다는 그냥 시간에 맞춰 장소에 가서 운동 같이하면 됩니다. 배드민턴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 먼저 영어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공부 하심을 추천합니다. 친구들과도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독일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 하고 오심을 추천합니다. (인사, 감사인사 등등)

생각보다 남는 시간이 많은데, (저만 그랬을수도) 그 시간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면 더 알차게 보낼 수있을거라 확신이 듭니다.

문화적 차이도 많지만 직접 할 경험들을 미리 말해버리긴 좀 그렇네요.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 혼자 사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 해외에서 혼자 지내보는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해외는 몇 번 나가봤지만 여행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방문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 독일생활도 기대했던 것처럼 매우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랬기에 더 많은 경험들과 즐거운 기억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는데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고 하기 싫었지만 돌아보면 다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도 듣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면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게 그들에게는 당연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꼭 세상이란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은, 삶을 조금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약적인 삶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을 자유롭게 가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결국 하면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주변 도시부터 옆 나라들까지 여행도 다니며 잊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갑니다. 교환학생 시절동안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랬고, 여유가 된다면 한번 정도는 다녀오심을 추천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